Switzerland Tourism.

트레노 고타르도(Treno Gottardo) 기차 론칭.

옛 정취 물씬, 복고 철도 상설 운행

옛 고타드 고갯길 달리는 노스탤직 파노라마 기차
세계 최장 터널 개통 후에도 옛 빈티지 루트로 고갯길 파노라마 여정 운행
1882 년부터 운행되던 빈티지 철길 따라 250 개 이상의 다리와 7 개 터널 지나는 여정
슬로우 트래블러를 위한 감성 돋는 파노라마 기차
이제부터 매일, 매시간 운행

스위스 북부와 남부 사이에는 알프스산맥이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스위스 독어권에서 햇살 가득한 이탈리아권으로 이동하는 길은 험준하고 위험천만한 알프스 고갯길이었고, 예로부터 노새를 끌던 밀수꾼들과 모험심 가득한 예술가들이 주로 나섰던 길이다. 그런 험한 알프스 고갯길 중, 고타드(Gotthard)는 악명 높은 고갯길이다. 이 고개를 따라 1882 년 철로가 놓였고, 지난 2016 년 6 월에는 세기에 한 번 있을 17 년의 대공사를 마치고, 세계에서 가장 긴 터널인 고타드 베이스 터널(Gotthard Base Tunnel)이 개통된 바 있다.

그 후로, 스위스 북부와 남부를 잇는 일반 기차는 모두 이 터널을 통과해 시간을 단축하였다. 이렇게 세계적인 기록을 세운 새 터널이 생겨 반가운 소식이지만, 그 이전까지 사용하던 옛 터널과 옛 기찻길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실용주의적인 스위스인들에게는 오래되었다고 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그들은 옛 터널과 기찻길이 이번 새 터널과 함께 다시 주목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강구했다. 신속한 이동이 중요한 여행자들도 있지만, 그만큼 길어진 터널의 어둠 속에서 알프스의 풍경을 놓쳐야 하는 것이 안타까운 슬로우 트래블러도 있기 마련인 법이다.

이들을 위해 그동안 여름 시즌에만 한시적으로 고타드 파노라마 익스프레스(Gotthard Panorama Express)라는 기차를 운행해 왔었다. 그러나, 겨울의 고타드 고갯길 풍경을 옛 정취 그대로 감상하고자 하는 여행자들과 여행의 전통을 되살리기 위한 의미로, 연중 상시 운행하는 기차 노선을 새롭게 론칭하게 되었다. 바로, “트레노 고타르도”라는 이름의 기차다.

트레노 고타르도는 120 년이나 된 고타드 파노라마 철로를 매시간 운행해 햇살이 입 맞추는 스위스 남국으로 향한다. 파노라마 여정 중에는 인상적인 알프스 지형과 짙푸른 호수, 지중해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야자수와 호숫가 저택 풍경까지 다채로운 스위스의 면모를 감상할 수 있다. 지금도 이 옛길을 따라 250 개 이상의 다리와 7 개의 터널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여정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이 빈티지 루트의 하이라이트는 암슈테그(Amsteg)-질레넨(Silenen)과 구어트넬렌(Gurtnellen) 사이에 있는 127m 나 되는 섀르슈텔렌바흐(Chärstelenbach) 고가와 121m 의 인트쉬로이스(Intschireuss) 고가가 있다. 고도 차를 극복하기 위해 기차는 더블 루프 형 터널을 통과하며 곡선을 그려야 하는데, 그로 인해 승객들은 바쎈(Wassen) 마을의 바로크 양식 교회를 세 개의 다른 각도로 감상할 수 있게 된다. 고타드 루트를 빠져나오는 남부 쪽 라보르고(Lavorgo)와 죠르니코(Giornico) 사이에서 티치노(Ticino)강 협곡과 인상적인 고속도로 고가를 감상할 수 있는 비아쉬나(Biaschina)의 터널도 하이라이트 중 하나다.

분주한 도시, 역사적 건축물, 다채로운 자연, 레저 활동 등 이 모든 것을 트레노 고타르도에서 체험해 볼 수 있다. 스위스의 다채로움을 하나의 기차에 담은 셈이다.

Switzerland Tourism Korea
77 Songwol-gil, Jongno-gu, Seoul 03165
MySwitzerland.com

이 새로운 기차는 식당칸과 가족 공간을 갖췄는데, 취리히(Zurich)와 바젤(Basel)에서 매시간 운행해 루체른(Luzern)을 거쳐 로카르노(Locarno)까지 이어진다. 빈티지한 여정에서 스위스의 매력을 담뿍 느껴볼 수 있다.

루트: 취리히/바젤/루체른 – 벨린초나(Bellinzona) – 로카르노*
* 2020 년 12 월 13 일부터 2021 년 4 월 4 일까지에 한해 벨린초나까지만 운행한다.

소요 시간: 취리히 – 로카르노: 3 시간 19 분
바젤 – 로카르노: 4 시간 21 분
루체른 – 로카르노: 3 시간 6 분

티켓: 스위스 트래블 패스로 무료 이용할 수 있다.

자료제공: 스위스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Korea
77 Songwol-gil, Jongno-gu, Seoul 03165
MySwitzerland.com